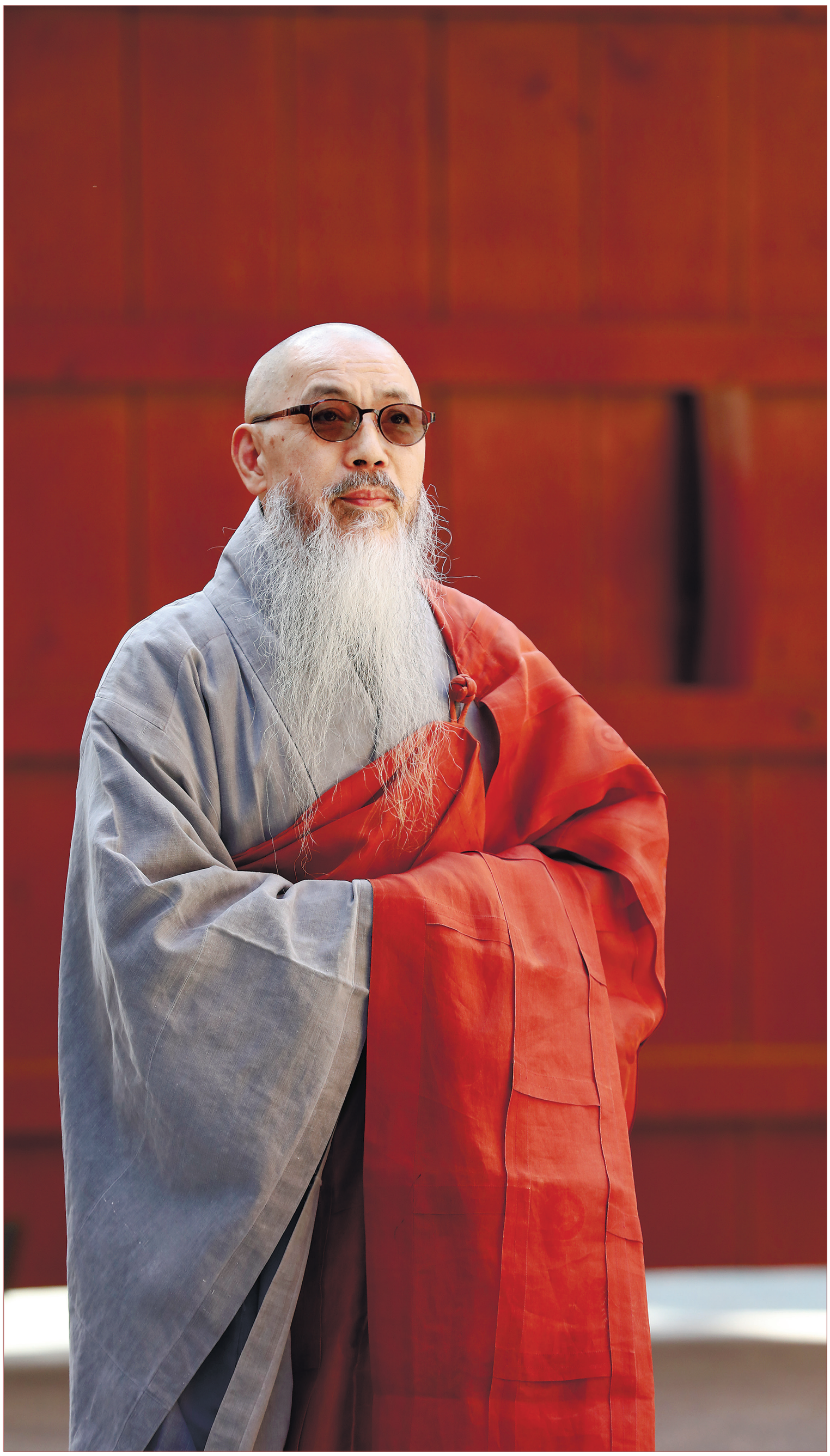
킬리만자로에 불교씨앗 뿌린 전법승



동봉 스님은… 1975년 불문에 귀의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법명은 정휴(正休)이며 자호는 일원, 법호는 동봉이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BBS불교방송에서 '살며 생각하며', '자비의 전화' 생방송을 진행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전법과 말라이라 구제활동을 펼쳤다. 한국 출가자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했다. 2016년 개교한 보리가람기술농업대학의 부지를 마련해 조계종에 기증했다. 곤지암 우리절 창건주이자 회주로서 책, 법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佛法을 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포의 새벽편지'로 불법을 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서울 대각사 주지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四物의 기원과 선원 환경

B5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2019 테마전

B6 학술
미군 가져간 신흥사 경판 '환지본처'

그대는 자비보살

동봉 스님(66 · 대각사 주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존이시여, 저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수로나로 가겠습니다." '설법제일'로 불리는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들은 후 수로나로 향한다. 부처님은 걱정이 앞선다. 수로나는 아직 법이 전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사나웠기 때문이다. 결국 부루나는 수로나에서 열반에 든다. 순교였다. '신통제일'이었던 목건련도 전법의 길에서 순교로 열반에 들었다. 이처럼 법의 불모지에 법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절마다 전법의 원을 품고 낯선 곳을 찾아 나선 불제자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도 불법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도 낯선 곳을 바라본 불제자가 있다. 그가 바라본 낯선 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그 원력의 주인은 동봉 스님이다.

佛法 불모지, 아프리카

부루나 존자가 '설법제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큰 전법원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원력이 곧 불사였다. 전무후무한 아소카왕의 전법을 비롯해 전법은 쉼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꽃피지는 못했다. 아직도 부처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곳은 많다. 그 많은 처처가 시절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년설의 봉우리를 지닌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마침내 불연이 시작된다.

2004년 11월. 동봉 스님은 킬리만자로를 보기 위해 탄자니아를 찾았다. 단순한 '여행'이었다. 그것이 '佛씨'였다.

"그야말로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한국불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불교 자체가 없었어요."

아프리카 54개국에 한국불교는 없었다. 일부 극소수의 나라에 불교가 있었지만 그 저변은 매우 빈약했으며, 그 빈약함 속에서조차 한국불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프리카에 불교는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타종교는 이미 자리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겨우 100년의 역사를 가진 타종교도 생각해낸 것을 1천7백년, 아니 2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웠죠."

부처님 말씀이 닿지 않은 곳,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길을 걷는 이방인의 낯선 한 걸음 한 걸음은 뜻을 품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불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마음속에선 전법의 원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창한 원력이라기보다는 부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불법(佛法)'이라는 씨앗 하나 심고 싶었어요."

낯선 땅, 다시 킬리만자로

떠나는 발걸음은 '떠남'이 아니었다. 킬리만자로를 떠나는 동봉 스님의 발걸음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채비였다. 한국에 돌아온 스님은 킬리만자로로 돌아가기 위해 미련 없이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한다. 경기도 광주시 우리절의 주지였던 스님은 그동안의 불사와 많은 인연을 뒤로 한 채 2005년 3월 다시 킬리만자로로 향한다. 또 다른 출가였다. 삶에서 삶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출가가 아닐까. 오래전, 삶에서 삶을 정리했듯 스님은 또 한 번 '길'을 간다.

다시 킬리만자로 땅을 밟은 동봉 스님은 홈스테이로 킬리만자로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현지의 언어, 현지의 문화부터 익히고 알아야했다. 그리고 전법에 대한 구상을 해야 했다. 탄자니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한 한국의 타종교는 열심히 길을 닦고 있었다. 불법(佛法)이라는 씨앗 하나가 전부인 동봉 스님에게 킬리만자로는 부루나의 '수로나'였다. 처음부터 부처님의 '佛'자를 꺼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현명한 일도 아니었다.

스님은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법의 전부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매주 교회나 성당에 나가 현지인들과 교감했다. 스님의 손엔 경전도 종교도 없었다. 누가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의 이방인. 탄자니아에는 왜 왔을까. "탄자니아에는 왜 왔나요?"라는 현지인의 물음에 스님은 "와보니 살고 싶어져서 다시 왔다"고 했다. 그렇게 스님은 탄자니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킬리만자로에 울리는 한글반야심경

2006년 2월. 동봉 스님은 홈스테이를 정리하고, 킬리만자로 산자락 해발 약 2천m에 약 3천 평의 땅을 마련한다. 아프리카에서의 길을 시작해야 했다. 그 옛날의 순도, 마라난타를 기억하며 동봉 스님은 낯선 땅에서 '길'을 시작한다.

스님은 마련한 땅에 작은 움막집을 하나 짓는다. 이름은 '보리가람스쿨'. 이름은 학교였지만 그것은 한국불교 최초의 아프리카 도량불사였다. 출가자의 거처이고 그 출가자에겐 진한 원력이 있으며, 후에 부처님도 모셨으니 그것은 분명 법당이었다. 법당의 불상은 탄자니아 사람이 탄자니아의 특산품인 흑단으로 조성했다. 일명 '마사이 불'이다. 마사이족의 얼굴을 닮았다. 탄자니아 사람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얼굴이다. 마침내 탄자니아 출신의 불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으며, 탄자니아 땅에 부처님의 실존이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낮엔 아이들이 몰려와 공을 차고 목탁을 두드리며 놀았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돌아가고 고요가 찾아오면 도량엔 스님의 독경소리가 흘렀다. 아프리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법당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 보살행자 깊은반야 실천하여 저언덕에 도달하는 바라밀다 하올때에 오온모두 공한것을 분명하게 비춰보고 이세상의 일체고액 모두벗어나느니라…"

어느 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기슭에서 반야심경이 들려온다. 동봉 스님의 4언절구 〈한글반야심경〉이다.

B2면에 계속

아프리카에 전법 원력

"아프리카에 한국불교 없어"
킬리만자로에 '가람보리스쿨' 불사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 도량
불상 모시고 〈한글반야심경〉 알려
현지서 아프리칸 이름 '기포' 받아
종립학교 부지 3만 평 마련 기증
탄자니아 전국 돌며 말라리아 구호